

2018년 안성시의회 해외 선진지 견학 여행보고서



안 성 시 의 회

2018년 안성시의회 해외 선진지 견학 여행보고서

안성시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제11조(여행보고서 제출) 및 안성시 공무국외여행규정 제18조(복명서 및 귀국보고 등의 제출) 규정에 따른 여행보고임

□ 연수개요

- 기 간 : 2018. 11. 01(목) ~ 11. 09(금), 7박 9일
- 대상국가 : 스페인, 포르투갈
- 방 문 단 : 총 13명
 - 시의원 : 신원주 의장, 안정열 부의장, 송미찬 운영위원장
반인숙 의원, 유원형 의원
 - 직 원 : 박영석 의회사무과장, 이승영 전문위원, 이진섭 의정팀장,
윤미자 의사팀장, 주무관 4(김형일, 김현석, 이화동, 한효경)

□ 주요 추진일정

날짜	도시	일정
11.01(목)	인천	인천국제공항 출국 및 프랑크푸르트 경유, 리스본 도착
11.02(금)	리스본	▶ 리스본(히베이라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 현지견학)
		▶ 포르투갈(리스본 도시경관 조성 현지견학)
11.03(토)	세비야	▶ 세비야(세비야 대성당 유적지 관광사업 정책 벤치마킹)
11.04(일)	그라나다	▶ 그라나다(알함브라 궁전 등 유적지 관광사업 정책 벤치마킹)
11.05(월)	톨레도	▶ 톨레도(톨레도 대성당 등 유적지 관광사업 정책 벤치마킹)
	마드리드	▶ 마드리드(마드리드 광장 등 도시경관 조성 현지견학)
11.06(화)	마드리드	▶ 마드리드(노인복지사회복지국 방문 노인복지정책 간담회)
11.07(수)	몬세라트	▶ 까탈루냐 몬세라트(HORTEC 방문 유통시스템정책 간담회)
	바르셀로나	▶ 바르셀로나 구시가지 경관 및 재래시장 활성화 현장 견학
11.08(목)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귀국 및 11.09(금) 인천국제공항 도착

여행결과 보고서

□ 서 론

○ 연수배경과 목적

- 금번 해외 선진지 견학은 시정 질문 등 그간 의정활동 등을 통해 논의되어 왔던 주요 현안 중 해결노력에 비해 성과가 미흡했던 현안에 대해 선진시스템의 자료수집, 현지견학 등 벤치마킹을 통해 문제 인식의 재정립과 해결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목적을 두었다.
- 주요 현안으로 안성시 미래의 먹거리로 대표되는 문화관광사업, 지역농업과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고령화 문제를 우선으로 설정하여 견학일정을 추진하였다.
- 방문 대상지는 선진 복지정책과 관광산업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유럽국가 중 관광산업과 함께 유기농 농산물 생산 및 이에 따른 선진유통 시스템이 우수한 국가로 선택하였다.
- 사전 견학 준비과정에 있어 예비규정과 교육기관에서 제시한 비용과의 차이, 지방총선거 후 제7대 의회 개원에 따른 구성원들의 변화 등으로 준비에 있어 여의치가 않았다.
- 하지만, 방문단은 주어진 여건에서 해외 시스템에 대한 견학을 통해, 우리시의 문제점 및 잘된 점 등을 배우고, 발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 여행보고서 작성

- 여행보고서 작성은 여행계획서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세부일정 추진 등 일반적인 계획대비 진행 결과보고 방식을 지양하고,
- 견학의 주요 일정 진행 중 우리시와 비교하여 보고, 듣고, 느낀 사항과 우리시의 현안과 비교 검토하여 개선점을 제시하는 보고 방식으로 작성하고자 하였다.
- 여행보고서 작성에 있어 통계수치 등의 자료는 현지로부터 받고, 청취한 자료를 인용하기보다는 나무위키 등 인터넷자료, 언론보도 자료 및 통계서적 등의 자료를 인용하여, 명료성과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 특히, 선진시스템 등 대상과 비교하여 시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되, 기 역대 안성시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고, 개선방향 제시 등 제안에 대해 시정사업 중 언론보도, 의원 의정활동 등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던 과거 사례를 언급하여 이해를 제고 하고자 하였다.

□ 본 론

○ 문화예술관광분야

- 안성시는 '시민이 행복한 맞춤형도시'라는 비전을 갖고,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 해왔다. 그 중 타 지자체에 비해 비교적 지역적 차별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문화관광 분야에서 그간 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과 우리시의 미래 발전 및 먹거리 산업으로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공공사업을 추진해 왔다.

- 대표적인 예로 안성맞춤 아트홀 건립 및 운영,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육성, 남사당공연장 기반시설 건립과 시립바우덕이 풍물단 운영 등 대규모 또는 지속적인 재정투자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 하지만,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성과에 대해 평을 하자면,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문화예술 마인드 함양 또는 생활화, 지역경제와 연계된 수익창출 증대, 예술인 활동의 대중화 등 많은 분야에 있어 문화예술 활동이 활성화 된 세계적 문화예술 도시들을 논외로 치더라도 예술 활동이 거리마다 넘쳐나는 서울 홍대거리 등과 비교해 본다면 비약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 또한 관광분야에 대해서도 가까이로는 일본 관광명소인 유후인 남해 다랭이마을 지역주민들이 낙후되어 가는 지역경제를 되살리고자 천혜의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마을경관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광명소로 거듭난 경우처럼 우리시는 체계적인 경관개선 사업으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조성해 나갈 수 없었던 것일까?
- 2017년 안성통계연보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우리시는 예술·스포츠·여가(R)에 종사하는 사업체수는 432곳, 종사자 2,122명으로 전체 지역경제의 2~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세계적 관광 도시들 대부분이 40~50%이상 관광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고 지역경제의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등의 자료들을 마주해 보면 매우 미약해 보인다.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사업체수/	429곳/	425곳/	404곳/	432곳/
종사자수	2,139명	2,210명	2,029명	2,122명

- 물론, 단적인 통계로 다른 유럽 관광도시와의 비교하여 우리시의 문화관광 분야 지역 경제가 미약하다고 결론을 맺는 것은 성급하겠지만, 그간 추진했던 노력들과 다양한 재정투자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체와 종사자의 변동이 적었다는 것은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닐 것이다.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갖고, 견학 중 주요 일정 중 보고, 듣고, 체감한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의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제시해 본다.
- 방문단의 첫 번째 시찰 도시인 스페인 세비야는 스페인 남서부의 안달루시아 지방에 위치한 도시로서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발렌시아에 이은 스페인의 제4의 도시라고 한다. 세비야를 가로지르는 과달키비르 강이 수심이 깊고 유량도 많아 항구로서 기능이 가능해서 스페인 제국의 당당한 제1 무역도시이자 신대륙 교역의 첫 관문이었다고 한다.
- 우선, 도시경관에 대해 언급 하고자 한다. 세비야의 도시 가로수는 오렌지나무인데, 오렌지는 과거 이곳의 지배세력이었던 이슬람의 문화에서 부를 상징하는 나무였기에 그 당시에 많이 심어졌다.



- 현재에도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도심곳곳에 가로수로 잘 심어져 있어 지역관광산업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었다.(경관용 오렌지 나무이기에 식용은 안 된다고 한다.)
- 우리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신원주 의원(당시 부의장)의 조사연구를 통한 자유발언에 의하면, 시 상징물 들은(은행나무, 까치, 개나리) 1970년경 행정편의주의 산물로 제정된 결과물로서 시 상징나무인 은행나무는 안성고장의 지역특성과 지역주민들의 애정이 담긴 수목이라 하기에 대표성이 부족해 보인다.
- 그리고 역대 안성시장들은 안성시 도시 미관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도 가로수 관리에 애정을 갖고 추진해 왔는데, 도시경관 전문가나 지역주민의 의견이 담긴 계획보다는 단체장의 관심도가 우선으로 반영되다 보니 지역마다의 특성과 도시미관과의 조화 등 전체적인 도시경관의 제고라는 결과에 있어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는 없었다고 본다.(제161회 조성숙 의원 자유발언)
- 도심 가로수는 병해충에도 강하고, 안성지역 기후풍토에 알맞으며, 사고로 인한 상처에 회생이 뛰어나며, 미관을 위해 수형이 아름다운 나무로 심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우리시의 관련 조례에서는 수종에 대해서는 은행나무, 왕벚나무, 단풍나무, 이팝나무를 식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특정 목적이 있는 경우는 접합한 수종을 식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더 활용해온 편이다. 하지만, 특정 목적이 무엇인지, 그 특정 목적이 지역의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점이, 성과를 창출함에 있어 애초 한계점이 있었던 것이다.

- 또한 현 조례에서는 2017년 9월 이전까지는 도시경관 전문가가 부재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가로수 조성 등에 대해서는 심의토록 하였었고, 이후에는 도시림 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림 조성을 위해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었지만, 이 또한 해당 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아, 전문성이 계속 부족했었다.

도시공원위원회 구성 (2017년 기준)	시의원	교수	공무원	가로수 분야 전문가	민간단체
인 원	1	1	3	5	지속가능발 전협의회 1

- 정리하자면, 관광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이 살린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서는 가로수 조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하며, 가로수 경관 조성 또한 장기적 플랜과 가로수 조성에 대한 도시경관 전문가를 포함토록 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림의 개념 정립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검토를 통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수목선정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지역적 특성에 대한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 다음 방문단의 견학 일정 중 인상 깊었던 주요 건축물들에 대해 우선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세비야 대성당은 스페인 세비야에 있는 가톨릭의 대성당으로 정식 명칭은 성모 마리아 주교좌 대성당이며, 이슬람의 모스크가 있던 자리에 그대로 성당을 건설했기에 다른 성당들과는 달리 폭이 넓은 편이다. 전 세계 성당 중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브라질 아파레시다 성모 발현 국립 대성당에 이어 3번째로 큰 성당이며, 스페인의 성당 중에서는 가장 크다고 한다. 고딕 양식으로 지어졌으나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르네상스, 바로크, 네오고딕 등 여러 양식이 반영된 건축물이란 특징이 있다.



- 이어 그라나다의 알함브라 궁전은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건축이 절충된 건축물로 크게 4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 지어진 건축물이자 가장 전망 좋은 요새인 알 카사바, 아라베스크 양식의 꽃인 나사리 궁전, 아름다운 정원과 분수의 헤네랄리페, 스페인 르네상스 시기의 건물인 카를로스 5세 궁전과 산타마리아 성당과 프란치스코회 수도원이다.
-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면, 이미 로마시대에 조그만 요새가 있었고, 9세기 그라나다의 에미르가 성벽과 토대를 올렸으며, 1238년에 그라나다의 술탄무함마드 1세가 수도를 건설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화려한 궁궐로 변모시켰다. 이 시기에는 이미 그라나다 외의 모든 이슬람 왕국은 이베리아 반도에서 축출되었고, 유일하게 남은 그라나다도 카스티야의 속국을 자칭하면서 겨우 목숨 줄을 부지하는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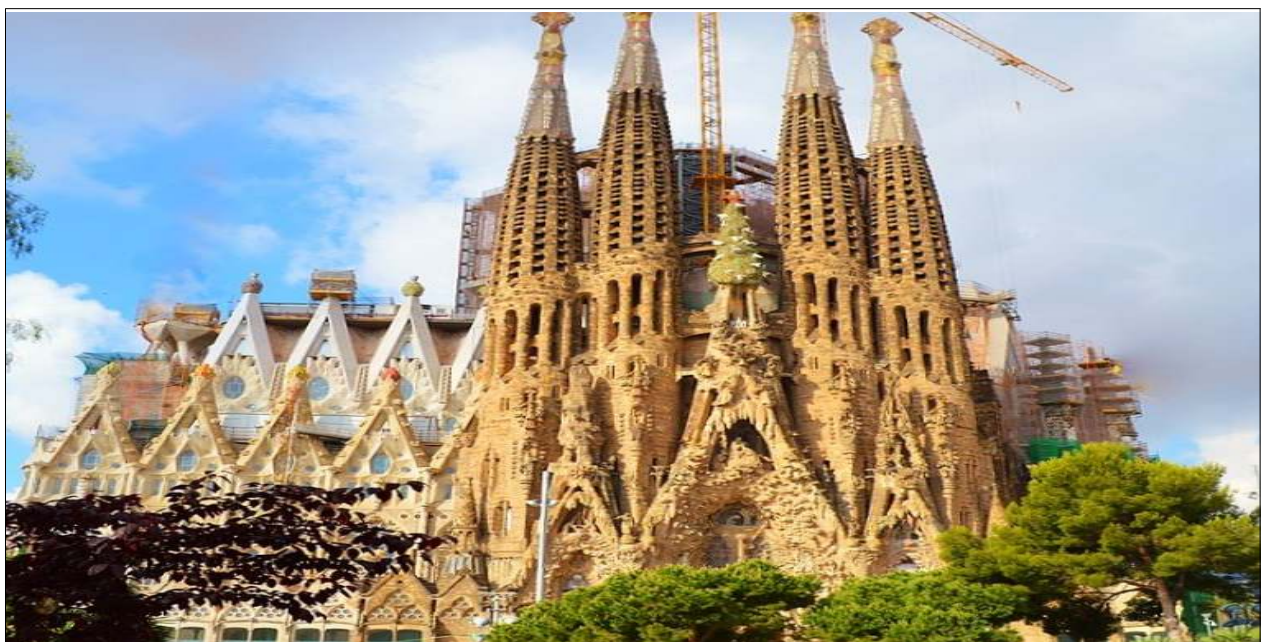


- 하지만, 1402년 이사벨 여왕이 이끄는 가톨릭 세력에게 함락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무어인 최고의 예술이라 불리는 알함브라 궁전은 무슬림의 전성기때가 아닌 황혼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만들어진 것이다. 이후 건축물은 내전 등으로 방치되어 많은 훼손이 발생되다가 1870년에는 국보로 지정되고, 1984년에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 되었다고 한다.
- 세번째 톨레도 대성당은 프랑스 고딕 양식의 대성당으로, 페르난도 3세가 1227년 건설을 시작하여 266년이 지난 1493년에 완성되었다. 그 뒤 여러 차례 증축과 개축이 되풀이 되었는데, 현재 스페인 가톨릭의 총본산이며 건물의 규모는 길이 113m, 너비 57m, 중앙의 높이 45m에 이른다.
- 특히, 대성당의 관광명소로 유명한 이유는 '트란스파렌테(1721 ~ 1732)라는 이름을 가진 나르시소 토메의 작품으로, 윗편의 둥근 천정을 깎아 구멍을 내 자신이 조각한 인물상들이 태양 광선을 받아 영적인 빛으로 이루어진 후광 안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갖는 대리석과 석화 석고로 제작한 놀라우리만치 화려한 제단이 있다

- 본당 우측의 보물실에 있는 성체현시대는 전체가 금과 은으로 만들어 그 화려함이 대단한데, 중요한 예술적 보물들 덕택에 이 건물은 성당인 동시에 박물관이기도 하다.



- 마지막으로 성가족성당은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가톨릭대성전으로 천재건축가로 알려진 안토니오 가우디가 설계한 건축물로, 1882년부터 착공에 들어간 이래 136년이 지난 지금도 가우디 사망 100주기인 2026년에 완공이 예정으로 계속 건축되고 있다.



- 이상 설명한 위 4곳은 방문단이 견학한 스페인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해마다 엄청난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이다. 2013년도 스페인 통계에 따르면, 이 시기 경기침체로 인한 전반적인 산업 위축시에도 오히려 관광업 수입은 0.8% 증가한 433억 유로를 기록하여 경제 위기를 극복에 기여할 정도였다고 한다.
- 위 관광 유적지들은 우리나라 건축물로 비교하자면, 유구한 역사와 한국적인 예술의 미, 한민족의 자부심이 깃들여 있는 불국사, 경복궁 등을 연상할 수 있는 건축물들로 우리고장의 유적지 건축물과 직접적인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방문단은 우리고장의 관광 유적지 등 관광지 관리 정책 등에 있어, 우리에게 도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항들을 몇 가지 고민해 보았다.
- 첫 번째로는 지역특성이 있는 관광 기반시설 조성이다. 우리시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자연휴양림, 역사공원 및 호수주변 관광지 개발 등 기반조성사업과 지역축제 활성화, 관광투어 및 문화 해설사 운용, 안성8경 지정 및 홍보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왔다.
- 하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사업들은 문화관광산업의 잠정적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타 지자체에서도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기에 우리시가 비교 우위를 점하여 관광산업이 향상되었다고 하기 힘들다.
- 스페인 도시 곳곳마다 방문단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던 것은 경제 발전과 부의 상징이 되어버린 마천루 빌딩 숲이 아닌 스페인만의 특성이 담긴 유적지와 주변 전통건축물들의 조화로운 경관이었다

- 가까이로는 전주 한옥마을을 예로 들자면, 도시 경관을 위해 지방 정부가 거주자들이 건축물을 신축 및 보수 때마다 전통가옥으로 짓도록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경기전, 전동성당 등의 관광 유적지와 주변 한옥들이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맥을 이어가고 있다.
- 이는 우리 안성시도 시민과 함께하는 장기 플랜에 의해, 지역특성이 살아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관광도시로서의 변모해갈 수 있을 것이다.
- 두 번째로는, 지자체에서 공공건축물 지을 때도 한 개인의 성과물이 아닌 스페인 유적 건축물들이 수많은 인고의 시간이 투자된 산물인 것처럼 성급한 결정에 의한 결과물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의 재정과 건축물 용도 등의 상당한 차이점은 있겠지만, 공공 건축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시간 투자 등이 반영됨으로써 창출되는 성과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 몇 해 전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안성천 교량정비사업 등 랜드마크 성격의 사업을 추진되었던 적이 있다. 디자인설계 및 시공에 약 1년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2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자된 결과물치고, 그 건축물들이 현재 진정한 안성시의 랜드마크로서, 안성 시민들의 자긍심으로서, 관광산업 활성화면에서 도움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제149회, 김지수 의원 시정질문 등)
- 충분한 지역 공감대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사례를 보면서, 건축사업 하나하나에 성과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신중한 고민과

철저한 준비로 이루어진 사업이야말로 우리가 의정활동에 있어 되새겨 할 점이 아닌가 싶다. 현재의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유용한 혜택을 보고 있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칠장사, 청룡사 등의 유적지가 인고의 시간이 투여된 산물인 것처럼, 미래의 후손들이 우리의 성급한 결과물들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되었던 국비사업인 극적루 복원사업이 2013년 마무리 되었는데, 현재 방치되고 있는 상황과 연계하여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당시 극적루 복원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옛 선조들이 우리 고장에 남긴 애국 정신과 충의를 되살려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과 지역통합의 표상으로 남기고자 함이 아니었던가?
- 아쉽게도 당시 복원장소의 문제와 더불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회와 많은 시민들의 우려가 있었는데(제126회 1차 정례회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신동례 의원) 현재 극적루는 시민 통합과 도시경관 제고 등 활용의 미흡은 물론이고, 시민의 관심조차 부족한 것 같다.
- 관광 분야 정책 추진에 있어 기반시설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적 접근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벤트적인 정책 사업에 의한 기반시설 완공이 완료가 아닌, 개발사업이 완료되고 개발에 따른 활용 사업까지도 연계한 과정을 하나의 사업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지역농업

- 포르투갈 남부와 스페인 남부지역으로 이동하다보면, 끝없이 펼쳐진

나무숲들을 볼 수 있다. 숲이라 하기에는 일정가격으로 정배열 되어 있어, 과실 수확을 위해 재배되는 경작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차를 타고 몇 시간을 이동하여도 그 끝을 헤아릴 수 없는 규모에 방문단 전원은 그 놀라움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었다.

-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지중해성 기후와(건조하고 온난), 서안 해양성 기후 및 스텝기후가 고루 분포되어 있어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특히, 포르투갈 및 스페인 남부지역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강수량이 200 ~ 400mm로 건조한 특성 때문에 코르크 및 올리브재배가 적합한데, 그 수확량이 각각 전 세계의 35% 및 50% 이라고 한다.(통계 수치는 현지 제공 및 인터넷 등의 자료마다 차이가 있음)
- 먼저, 포르투갈의 코르크참나무 재배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코르크 참나무는 전 세계에 2백만 헥타르 정도 분포하고 있는데, 포르투갈에서 34%를 재배하고 있으며(스페인 27%), 연간 코르크 생산량이 10만톤 이상이 된다고 한다.
- 또한 코르크참나무는 대표적인 코르크마개 생산뿐 만 아니라, 스포츠 용품과 자동차 및 항공기 부품제작에도 사용하고, 남은 재료로는 건물의 바닥소재, 벽지, 신발 등을 만들어 사용한다고 한다. 또한 최근에는 단열과 방음이 잘 돼 건축용 자재로도 사용되고, 제품으로 만들 수 없는 그 나머지 폐기물들은 공장에서 연료로 사용한다고 하니, 그 활용도에 놀라움 따름이다.
- 더 놀라운 것은 소재로 사용되는 나무껍질을 벗겨 내더라도 약 10년에 걸쳐 새로운 코르크층이 생겨나,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산물을 수확할 수 있다는 것인데, 즉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코르크 숲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은 포르투갈 연간 배출량의 5%에 달해 기후 변화를 막는데 일조하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

- 다만, 모종한 지 25년이 지나야 껍질을 수확할 수 있는데, 품질 좋은 제품 수확을 위해서는 약 5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 미래의 후손들의 먹거리를 위해 경작지를 조성하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농업정책 또한 장기적인 계획 및 시간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준 시간이었다.
- 다음 올리브는 스페인에서 세계 1위의 생산량을 자랑하는데, 로마 지배시대부터 경작하기 시작했다고 전해지며, 당시 농민들은 올리브를 신이 내려준 녹색 황금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 스페인에선 470만 에이커 면적에 3억 그루 이상의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재배면적은 우리나라 보다 10배 이상 넓은 2천 5백만 ha 라고 하고, 농업인구는 약 100만명 정도라고 하는데,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우리나라 농업인구(250만명)에 비해 상당히 적다. 즉, 농업이 규모화, 전문화되어 있어 농업 경쟁력이 비교적 우수하다.
- 스페인에서 올리브 농업은 경제 위기 탈출에 기여할정도로 경제에 차지하고 기여하는 비중이 높다고 한다. 스페인 산업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올리브 관련 수출로 벌어들인 금액은 전체 수출액의 9%로 관광산업과 더불어 스페인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 참고로 올리브는 미국 건강 전문지 헬스(Health)는 지난 2008년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한국의 김치, 일본 낫토, 그리스 요구르트, 인도 렌틸콩, 그리고 스페인 올리브를 선정될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는 우수한 작물이다.
- 올리브 열매로 활용되는 상품은 부지기수로 올리브 열매를 비롯하여 오일 등의 식품류, 크림 및 립밤 등 화장품류, 피부연고 등의 치료제 등 많은 분야에서 상품으로 활용되고 있다.
- 이상 언급한 코르크와 올리브 농업은 규모의 경제란 특성을 띄고 있다. 그것은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아 대외 시장 환경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상품의 가치성과는 별개로 효과적인 유통시스템 등의 방안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한다.
- 이에 방문단은 유통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유통시스템에 대한 벤치마킹을 추진하였는데,
- 방문단이 견학한 HORTEC는 생존을 위한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1991년 최초 2~3명의 회원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농산품(야채, 과일) 유통조합으로 현재 18명의 파트너(총 재배면적 100ha)로 구성된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의 유일한 청과물 유기농협동조합이다.
- 이 조합의 파트너는 중간 및 소규모 농민으로 생산량이 많지 않지만, 전문화된 생산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을 갖고 바르셀로나와 인접한 도시에 자체 유통경로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고, 이후 카탈루냐와 스페인 곳곳으로 유통구조를 넓혀나갔다고 한다.

- 우리 방문단을 영접한 HORTEC의 매니저는 우리 방문단에게 조합의 성장과 운영에 있어 제일 우선은 조합원들의 재배작물과 생산량의 전략적 조정, 그 수확 농산물의 전량 유통을 통한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이 점은 방문단에게 시사 하는 바가 컸다.



-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자체 농업구조는 미곡 작물에 편중되어 있고, 이에 따른 수확되는 전량을 유통처리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소규모 경작구조로 인해 외부 경쟁력이 부족하고, 이로 인한 불안정한 농가소득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 우리시 또한 통계수치로 살펴보면, 재배 농작물에 대한 관리에 있어 지나친 미곡재배에 의존한다는 문제점(면적 약 95%, 생산량 87%, 출처 : 안성통계연보)을 알 수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농작물 재배를 유도하고자 각 보조금을 통해 농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 분	미곡	잡곡	두·서류	채소류	특용 작물	과실류
'16년	8,764ha / 44,871톤	25ha / 87톤	83ha / 838톤	147ha / 4,848톤	54ha / 41톤	76ha / 775톤

- 하지만, 시범재배 농작물들의 수확량의 불확실한 유통에 대한 우려와 그 금전적 피해에 대한 농가들의 직접감수란 위험성으로 계획대로 지역 농업구조 변화가 용이하지 않다.
- 원활한 유통구조 환경 조성을 위해 재배농작물 대상선정과 그 생산량을 재배 전부터 조절한다는 HORTEC의 우수한 점은 우리와 다른 농업구조와 환경, 정부지원체계, 수출환경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우리시에 직접적인 대안으로 제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다만, 새로운 농작물 재배하여 안정적 소비시장 형성과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도록 해야 하는 숙제는 지자체에서 여전히 고민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수립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방문단의 주요 의견들을 제시해본다.
- 농작물의 안정적인 판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야 할 것이고, 다음은 1차적인 농작물 유통뿐만 아니라 올리브와 코르크 농업처럼 2~3차 가공 상품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작물선정과 지역농업 발전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 단기적 수익 보다는 장기적 플랜에 의한 점진적인 농업시스템 변화가 필요하고,
- 그리고 추진방식에 있어 보조금을 통한 농가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보다는 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상품성 확인 뒤 농가에 기술이전 등의 방안 등의 의견도 검토해 볼 만하다.

-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농가 수입창출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농작물 재배를 위해 계속 시험재배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일례로 호두나무의 시배지로 알려진 천안시는 2016년 기준 호두 총생산량의 10%로 전국 세 번째로 생산지인데, 호두는 열매뿐만 아니라 호두과자 가공판매까지 고려할 수 있어 안정적인 판매시장을 갖고 있다. 이에 천안시는 2021년까지 30여억을 투입해 식재면적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한다.
- 정리하자면, 농가의 안정적 수입과 튼튼한 지역농업경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재배 농작물의 다양화가 필요한데,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 계획에 의거 지역적 특성에 맞고 2~3차 가공까지 가능하여 유통에 있어 수월한 작물로 선정하고,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시에서 시범재배 등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 그 외 분야(노인복지)

-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일찍이 복지에 대한 시스템 도입과 개선의 시행착오 경험을 갖고 있다. 우리가 방문한 스페인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 세계 37개국 중 하나로 그 중 1위라고 한다. 또한 유럽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 과잉복지로 인한 경제위기를 겪은 점에 있어 지향점과 유의해야 할 사항이 병존하기에 벤치마킹 대상으로 안성맞춤이다.

- 우리나라의 모든 지자체 주민들은 복지에 대한 지원욕구가 무한히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지자체에서도 의욕적으로 다양한 복지제도를 도입 및 시도하고 있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올바른 복지정책 방향 수립이 절실한 실정이다.
- 방문단은 마드리드시 노인복지사회복지국 방문하였고,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노인복지제도 선진시스템에 대해 복지국 부국장과 다양한 분야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 스페인과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세금과 연금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차이로 인해 간담회를 통해 얻은 우수한 복지정책들을 우리시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힘들었다. 다만, 간담회를 통해 복지에 대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점과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인상 깊었던 제안들이 있어 간추려 보고자 한다.
- 첫 번째는 스페인의 복지시스템을 들 수 있다. 스페인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제도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충당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 우선 복지제도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충당 한다고 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한 복지사업 제공이 가능한 환경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새로운 복지제도가 생겨나고 더 바람직한 복지제도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 우리나라도 점진적으로는 복지에 대한 기준을 정부가 제시하되, 재원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여 좀 더 다양한 복지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함을 희망해 보며,
- 민간자원의 활용은 크게 개별적인 후원 및 자원봉사 등으로 나누어 본다면, 기업 등 민간자원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복지시스템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방정부의 유도정책의(재정적 지원) 유무 차이가 있어, 우리도 점진적으로는 자율적·독립적인 자원봉사시스템 정착이란 목표점 설정이 필요해 보인다.
- 두 번째는 복지시스템의 목적이 노년층의 기능 회복을 통한 행복 추구에 있다는 것이다. 스페인의 노인복지 중 시니어 전문가 연대(경험의 재능기부)의 활성화, 노인층의 주체적인 지역축제 관리, 지역노인 돌봄 시스템 등 사업들을 보면 노인들에 대한 경험과 공헌, 재능을 존중하는 문화로 능동적인 노인층의 지역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우리 또한 고령화 계층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편의제공

이런 복지 정책에 치중되어 그들의 경력과 능력을 존중하고, 활용하는 복지정책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단순히 노인일자리사업 등 경제능력이 부족한 이를 돕는 복지지원은 노인층에게 진정한 행복감을 주기는 힘들 것이다. 일례로 점차 확대 정착되어 가는 퇴직자들의 문화해설사 등 재능기부 자원봉사 활동과 같이 노인들의 경험과 재능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은 물론 본인 행복감을 찾아 줄 수 있는 정책과 사업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 그 외 분야(재래시장)

- 전통 재래시장이라 함은 대형마트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전인 재래시장을 이용해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풍경과 맛을 느낄 수 있는데, 볼거리, 먹거리와 시장상인들의 흥정 등 즐길거리가 넘쳐나는 풍경에 향수를 갖고 있다.
- 대형마트의 소비시장 진출은 재래시장의 위축과 시장상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데 영향을 미쳤고, 자체적인 생존전략을 마련하기 어려운 재래시장을 위해 지자체마다 재래시장 시설단장과 차별화 서비스 등의 활성화 사업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최종 발걸음은 대체적으로 대형마트로 향하고 있다.
- 우리시 또한 안성, 중앙, 일죽, 죽산 등의 재래시장에 대한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투자, 상품권 판매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대개 시설개선 성과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 경쟁력 향상이란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었으며, 다른 지역의 재래시장의 어려움도 비슷한 실정으로 보인다.(제169회 제2차 정례회 자유발언, 이기영 의원)

- 유럽에서도 같은 문제를 겪었지만, 벵룩시장 등 이벤트를 통해 그 나라만의 전통 있고 특색 있는 물건 판매 등의 자구책을 통해 극복한 사례들이 있다. 일례로 바르셀로나 산타 카테리나 시장은 상인들과 지자체가 뜻을 모아 리모델링 장기 프로젝트를 가동했고, 현대화 시설로 탈바꿈하였는데, 32만 5000개 타일을 사용한 시장 지붕 특색으로 세계 건축 1001에 선정되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많은 관광객의 방문하는 장소로 탈바꿈하였다. 이는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이 단순 쾌적한 환경조성 차원이 아니라, 관광 명소로서의 탈바꿈 수준의 노력으로 성공한 경우가 아닌가 싶다.
- 우리가 방문한 리스본 히베이라 시장, 바르셀로나 보케리아 재래시장은 점포별 상품 진열 디자인과, 농축산물의 특산물 나열, 최고의 품질보장 시스템 구비뿐만 아니라, 시장 주변 시가지가 관광지 명소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이는 재래시장 단독적인 경관개선이 아닌 재래시장과 연계된 경관개선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도 추정해 볼 수 있다.



바르셀로나 람블라스 거리



바르셀로나 보케리아 재래시장

- 또한 재래시장 경쟁력 확보는 단기적 관점에서 시설개선 수준에만 머무르면 안되고, 장기적 프로젝트로 안성시만의 전통과 지역적 특성을 느낄 수 있는 재래시장 공간을 창출해내야 한다.

- 예전 안성지역의 재래시장은 교류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품목과 활발한 거래로 유명했었지만, 현재는 교통 등의 변화로 안성지역의 재래시장이 예전처럼 지리적 이점으로 명성을 이어가기 힘들다.
- 국내 재래시장 중 대구 약령시장, 서울 동대문시장, 노량진 수산시장, 충남 금산시장, 광천시장, 파주 장단시장 등이 제각기 지역적 특성을 갖고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사례를 고려하건데, 장기간 과제로서 안성지역 특성을 갖고 있는 재래시장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다시 정리하자면, 소비자 편의를 고려한 환경개선은 물론, 안성시만의 특색을 갖춘 재래시장을 조성해야 할 것이며, 재래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도시경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재래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장기적 플랜에 의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 결 론

- 금번 연수는 실제적으로 5박 6일간의 일정으로서 해외의 문화관광, 농업, 복지 등 여러 분야에 대해 세부적인 벤치마킹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여행보고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주요 현안의 문제점 해결 보다는 현안에 대한 재인식, 선진사례를 통한 개선방향 모색, 그리고 그 개선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란 목적이 더 강하다.
- 보고서에서 거론된 문화관광, 농업, 복지, 재래시장에 대한 개선의견은 집행부의 견해와 시민들과 바람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간 역대 안성시의회의 의원들의 의정활동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정리하였다.

- 특이할만한 점은 벤치마킹을 통한 각 분야의 개선 제안들은 제각기 다른 형태의 정책이나 사업이지만, 장기적인 플랜과 지역공감대 형성을 위한 과정 절차(투명성)가 필요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 어떻게 보면, 맹물 같은 당연한 말을 했다고 평가될 수 있겠지만, 흔하고 흔한 물이 만물의 근본이듯이, 장기적인 플랜과 공감대를 형성한 정책시행은 모든 사업의 기본인데, 일부 사업에 있어 우린 그 기본이 간과하여 온 것이다.
- 금번 연수는 우리 방문단에게 적지 않은 점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었다. 지면과 미디어로부터 얻는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현지에서의 체감을 통해 얻은 지식은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등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 물론, 금번 연수 진행에 있어 부족한 점도 많았다. 특히, 지피지기라는 문장처럼 '나를 먼저 알아야 했다'는 것이다. 역대 시의회의 의정 활동에 대한 통찰과 주요 시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연구 검토가 선행된 후 벤치마킹 추진하는 것이 효과를 더욱 높일 것이다.
- 그리고 연수에 대한 장기 플랜과 공감대 형성이다. 시의회 의원과 직원 역량제고를 위한 국내 직무연수 및 해외연수에 대한 사전계획과 충분한 준비로 연수성과는 물론,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우리 시의회에도 필요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금번 연수를 진행함에 있어 물심양면 의원들을 지원해온 의회사무과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연수가 무난하게 마무리 될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